第七千七百三十三號 (1945·12·21 第三種郵便物認可) (1948·6·18 許可番號第二五號) (火曜日) 조선일보 THE CHOSUN ILBO. 檀紀四二八一年七月二十七日 (日刊)

朝鮮日報

編輯兼發行人 方應謨 印刷人 金演滬 編輯局長 文東彪
發行所 서울市太平路一街 朝鮮日報社
電話本社 編輯局 三三八五 營業局 三三八四
月定購讀料 貳百圓

初代總理席누구에게!

今日國會서發表

議員側의認准與否極注目

推測과憶測이交錯하는가운데 그正體를잡지못하야 焦慮裡에지나간梨花莊의總理人選工作은드되어 終結을짓고 李大統領腦中의初代總理候補者는 今日로서三千萬의 正面에登場하게되엿다 이날國會는 總理의認准을同요하고 過去에느때에도보지못한歷史的인 國執을演出할것으로보인다

한편今日國會에서의總理發表를앞둔二十五日의組閣本部梨花莊은 早朝부터政客의出入이 頻繁하엿는데 主要人物은 申翼熙, 許政, 張基榮, 咸秉綵, 李靑天, 尹琦燮, 方應謨, 金長烈, 金秉會, 尹錫龜, 白南薰, 金俊淵, 徐相日, 하-지中將政治顧問「제이코프」副統領李始榮氏等이다 그런데總理人選에 關하야組閣本部에서는 다음과같이發表하엿다

三號
昨夕(二十四日) 國際新聞(號外)로 發表된國務總理人選決定云云은 事實無根이다

申氏·趙氏를推薦

二十六日上午 梨花莊을訪問한申翼熙氏는記者團의質問에 趙素昻氏를總理로推薦하엿다고 말하엿을뿐 一切言明을廻避하엿다 그리고劉中國總領事로부터 正副統領에게 보내는某種의書翰이傳達되엿다는데 그內容이注目되는바이다

李將軍說否定

梨花莊 組閣本部發表第

總理決定한後

組閣에着手豫定

李大統領記者團과會見

李承晩大統領은二十五日 國務總理人選에關한記者團의質問에 다음과같이答辯하엿다

問 國務總理人選은完了되였다고하는데如何

答 國務總理는 누가任命될는지 아무도 몰은다 火曜日國會에서 알게될것이다 모든風說이어떠한圖에서나온것인지는몰으나 공연히人心을眩惑케할 이러한浪說은 注意해주어야하겠다

問 大統領은國務總理任命에對하야 意外의人物이라고言明하엿는데 至今까지物望中에있는人物이選定되리라고보는데如何

答 내가國會에 發表할때에모든사람이 놀래리라고한것은 많은浪說이流布되고있는것만치注意하라는말이요 世上에特別한 사람이 나온다는말은아니다

問 國務總理를任命하더래도 國會의承認이있어야하지않는가 國會議員이그人物에對하야 熟考할時間的餘裕가없다고 生覺할수있는데如何

答 國會에提出하면國會에서 參考할일이있으면時間要請이있을것이므로 그것은 國會에서할일이다

問 國會에서 承認하지 않는다면 다른人物을再選하겠는가

答 그것은 勿論이다

問 어제美國務省連絡員「제이코프」氏와의會談內容은如何

答 就任式後에 人事次로來訪한것이다 그리고그가 온機會에 나에게말하기를우리나라 國號가大韓民主共和國이라 하엿는데英語로 飜譯하자면까다롭다고말하엿다

問 國務總理任命發表가數日이經過되여도 發表되지않어 一般國民에게疑惑을주고있는데 그輪廓만이라도發表할수없는가

答 남자가遲滯되여참으로未安하다 重大한일인만큼 國會도一週日이나 休會햇다 그러나火曜日에再開될國會에 國務總理를通過시켜서 國務總理와協議하여組閣에着手할豫定이다

李副統領과會見

副統領 李始榮氏는二十五日午後二時半 梨花莊으로 李大統領을訪問하고同三時四十分頃까지 要談하엿는데 總理人選에關하여記者團質問에「大體로合意를보았음으로 이問題에關하여 다시大統領과議論할必要는없을줄로안다」라고言及하엿다

韓民·無俱確執

組閣을圍요하고 國會內各派의動向은 注目되는바인데 앞서無所屬俱樂部에서 韓民系의要職에起用할것을 大統領에게 建議한바있거니와 二十五日에는 韓民黨側에서白南薰, 金俊淵, 徐相日氏等이 大統領을訪問하고 無所屬側의意圖를 反駁하여建議하엿다하며 同日前後하여 無所屬側에서는尹錫龜, 金長烈, 金秉會氏等이 大統領을訪問하고 總理에趙素昻氏를推薦하는 建議書를傳達하엿다는바 今二十七日國會에서 總理認准에對한推移는注目되는바다

總理說李氏도否認
李範奭氏도否認

지난廿四日下午某紙號外로써 報道된李範奭氏를國務總理로 內定하엿다는說에對하야 同氏는 廿五日早朝 다음과같이 對答하엿다

어떠한野心家들이 新聞을通하여 旣成事實을가지고 代價를 獲得하드는 不快한處事이라 아니할수없는것이다 그리고 하-지中將과도 맛난일이없다

總理說無根
趙素昻氏談

國務總理로物望中에오른要人中數三日동안組閣本部와頻繁한來往이있는 趙素昻氏는 卄六日上午氏의邸宅으로 往訪한記者와다음과같은一問一答을하엿다

問 卄五日夜大統領과要談하엿다는說이있는데事實인가

答 그런事實은없다

問 副統領이貴下를國務總理로大統領에게 推薦하엿다는說이있는데 事前交涉이있엇는가

答 副統領과는 卅餘年來獨立運動을같이하여온關係上形式으로 相互間무슨交涉이나妥協을 必要로하지않는다 萬一 表示하엿다면나의意見보다 一般公論의問題에서 推薦하엿는지모른다

問 至今樹立되는政府를어떻게생각하는지

答 軍政狀態에서 政府狀態로 드러서니 좋다고는생각하나 具體的으로말하면政府가된後 그責任者가잘料理하여 가느냐 않느냐가 問題이다 至今完全獨立은 아즉되지않은것이며 過去六十年獨立運動의最後段階이라 할것이다

問 지난二十五日下午大統領으로부터 秘書를通하야 貴下에게 書翰을傳達하엿다고 하는데事實인가

答 私人便紙往來까지는 말할수는없다

朝鮮問題重要議題로
國聯巴里總會議題發表

【레이크삭세스二十五日發UP朝通】「파리」에서開催될今年度國聯總會의 暫定的議題가 二十四日發表되엿는데 이에依하면 朝鮮問題는 重要의하나로되어있다 그리고 希臘原子力 拒否權等問題도 包含되어있으며「파레스티나」「베르린」封鎖問題도 議題에 追加될것으로 보인다 國聯當局은 五十八個會員國에 暫定議題를分配할것이며 九月二十一日總會가 開催되기 最少限六十五日前에 追加議題를提示하고 最少十五日前에 會員國間에 通示할것을要請하엿다

南朝鮮送電交涉

蘇政府美要求를拒絕

【워싱톤二十五日發UP朝通】蘇聯政府는 北朝鮮에있는 南朝鮮美國占領地帶에 電力供給을再開하도록 北朝鮮에있는蘇軍司令官에 指示하라는美國政府의要求를 斷乎拒絕하엿다고 發表하는同時에 美國은 南朝鮮의復興을促進中인으로 若干卒理卒論의格이 있다고말하엿다 官邊에서는 二三個月以內에 美國地帶內發電이 蘇聯地帶內發電源에依存치않고 이地域의 正常要求를 充當시키는데 充分할것이라고말하엿다 以上蘇聯拒絕에이르기까지에 朝鮮에있는現地美蘇軍司令官은 蘇聯側에서五月十四日 斷絕한南部에對한 電力供給再開에關하여 合意를보지못하엿던것이다

美國은南朝鮮自足計劃促進

【워싱톤二十六日發UP朝通】當地官邊에서는「모스크바」當局이 朝鮮內蘇聯地帶에서 南方美國地帶에 對한 送電을再開하라는美國의要求를 斷乎拒絕하엿다고 發表하엿다

新政府承認에先鞭?
朝委比代表李大統領을招待

【서울中央社特派員李宣培發朝通】比律賓은 事實上 大韓民國을承認한國家가되엿다 即國聯朝鮮委員團 比律賓代表「루나」氏는 李承晩大統領이 就任式에參席하라는 招請狀을받은即時로 「比律賓代表의名義로 大韓民國大統領」이라고稱하여 敬賀의書翰을보내엿다 李氏는이어서 선물을가지고 比律賓代表에게 感謝의意를表하엿다 그리고二十四日午後七時「루나」氏는首都「호텔」에서 李大統領을祝賀하는 晩餐會를開催하엿는데 이에는國聯委員團七個國首席代表와 美國駐屯軍司令官「하-지」中將及金性洙氏其他國內外各界要人이出席하엿다

美進步黨大統領候補월레스氏를指名

【필라델피아廿五日發AP合同】「월레스」氏를黨首로推戴하는進步黨은廿四日同黨全國大會席上에서「월레스」氏를大統領候補로 「테일러」氏를副大統領候補로各各指名하는同時에 同黨政綱을 決定發表하엿는데그內容要旨는 大略다음과같다

一、蘇聯과의平和協定 二、原子彈의禁制 三、對日對獨講和條約의急速締結 四、獨逸、日本、朝鮮으로부터의 占領軍撤退 五、蔣介石政權에對한 美國援助中止及 對比律賓「벨」通商法廢棄 六、亞細亞人民의 獨立成就及封建主義로부터 近代主義로의轉移支持及이運動을 粉碎하는兩黨의 軍事及經濟干涉政策反對 七、民族的差別을基調로하는移民法反對 八、獨逸問題의 基本解決策은 非「나치스」化、民主化、戰犯人處斷、土地改革、財閥解體、重工業의 國有化、「루-르」의 四大國管理、「나치스」의侵略으로因한犧牲者에 對한補償及 波蘭의 西部國境으로서「오델」-「나이세」線을承認할것等等

蘇貨通用承認

美英佛側突然讓步

【베르린二十五日發UP朝通】英佛美三國은 二十三日밤에「베르린」市全域에 新蘇聯通貨를流通시키는데 同意하는趣意의意思表示를行한結果로「베르린」封鎖를緩和할素地가 發見되였다는感이西方聯合國側에 보이고있다 新蘇聯通貨는二十五日부터分配하게될것이다

伯林事態

蘇新幣發行
駐獨司令官宣布

【베르린卄四日發AP合同】獨逸占領蘇聯軍司令官「바시리·D·스코로브스키」元帥는二十三日夜東部獨逸과「베르린」에對하여 新恒久的인通貨를發行한다고宣布하엿다 이新通貨는 蘇聯側이日前에 斷行한通貨改革時에 使用한暫定通貨에代置하는것인데「스코로브스키」元帥말에依하면 新蘇聯貨幣는 蘇聯占領地帶及「베르린」市에있어 通用하는 唯一한法貨로看做될것이라한다

平和解決要望
크將軍歸任聲明

【베르린二十六日發UP朝通】「베르린」事態에對한 美國의今後政策을 決定키爲하여 國內蘇聯및獨逸關係外交軍事專門家들과 會談한後「워싱톤」으로부터 當地에도라온 駐獨美軍司令官「L·클레이」將軍은 다음과같이 言明하엿다 「美國은可能한 모든外交手段을다하여 蘇聯과의「베르린」封鎖問題解決에 努力할意圖이나 强壓下의 交涉에는 應치아니할것이다」 그리고 蘇聯側의 封鎖措置가 繼續하는限 美國은 航空輸送에서 如何한事件이 發生하드라도「베르린」에對한 空輸를 繼續할것이다 「베르린」및 全般的獨逸問題에關한 四大國交涉을 通하여 問題解決을 볼수있을는지 알수없다 그러나 强迫的인것이 아니라면 美國은 어느때나 와같은交涉에 反對하지않는다 如何間「베르린」封鎖가 存續하는限 그와같은 解決策은 不可能하다 美國은 平和的問題解決을願함으로「베르린」內의通貨對立問題에 關하여 蘇聯에讓할用意가있다

社說
拷問致死의 殘惡 (一)

今番警務部搜査局에서摘發한 首都警察廳의拷問致死事件은 關係人物이 首都廳의 幹部級十數가 主動이되엿하니 얼마전 摘發된 首都廳幹部署長等의收賄瀆職事件이 있엇든끝이라 이것이 果然어느時代 뉘治下이길래 이런일이있을수있엇던가 都下의市民은 그不法과殘忍性에 놀라기보다도 이러한首腦部를 가젓든首都의 警察陣의 腐敗와醜化에極度의恐怖戰慄을느끼고있다 軍政當局은 이제一刻의猶豫를 둘이없이 首都의警察陣을 一新하야 市民의不安을一掃하도록快速한 處理가있어야할것은 焦急한일이다 拷問! 우리는拷問이라는말만들어도 저倭의惡毒한軍警의殘虐한짓을 생각하고 全身에 솔음이끼치는것을 禁치못하다 그非文明的 暴行은 警察萬能의軍國的 獨裁國家의 常習이엿다 우리를爲이나 草芥視하는 惡行이엿다 이제民主主義 國家를建設하려다는이때에 先進美國이指導한다는國立警察下에 이무슨非人道的罪惡이냐 이責任을누가무엇으로써씨츠려는가 軍政當局의 猛省을促하는바이니法의威信을보이라 社會의正義, 道德感의 健全性을喊하는길은 이러한警察의惡質을 除去하는것밖에길이없을것이다

二

이에우리는通般大韓民國憲法起草委員會의 審議經過를 생각해보지않을수없다 當初原案에는 身體의自由를 規定한 條文에「現行犯으로 逮捕되는境遇以外에는 理由를明示한 裁判官의 令狀에依하지않고는逮捕, 拘禁, 搜索을받지아니하며」로되엿든것을 이에但書를 부치어「犯人의逃避, 또는證據湮滅의念慮가있을때에는 搜査機關은法律에定하는바에依하야 事後에令狀의 交付를請求할수있다」고한것만으로도 警察의人權侵害의 限度는 擴大되어 無制限的으로 되고있음을 알수있거니와 刑事被告人의 裁判받을權利를 規定한條文의「拷問과殘酷한刑罰은 禁한다」라고 한것을 削除해버리고말엇다 이項目을削除햇다고 起草委員會가拷問과 殘酷한加罰을 是認하는것이라고 할수는없다 그러나 過去倭政下의惡毒한警察의 官權萬能을생각할때 이項目은人權의擁護를爲하야 絕對必要한條文이엿으니 저日本의新憲法도過去日本警察의 惡風을 警戒하야「公務員에依한拷問及 殘虐한加罰은 絕對로 禁한다」고 한것은 갑은뜻을가진것이라할것이다 警察이 바로 못되고는나라를 바로잡기 어렵다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이거니와 오늘의議會는 이러한 拷問致死事件을보고 憲法條文을 다시생각해볼것이다

人事往來

▼李晶燮氏(서울辯護士會長)▼崔允源氏(同總務)▼金占碩氏(同會計)新任人事次來社
▼孫秉植氏(淑大講師)渡美人事次來社

옷감

본상점 이전기렴 대특매출……그전 상점서부터 넷재 아래집 종단집

특상품	본견항나	저고리한감	450圓	각색
특상품	본견생노방	저고리한감	400圓	각색
특상품	본견생고사	저고리한감	700圓	각색
특상품	생문항나	저고리한감	800圓	각색
특상품	길주사	저고리한감	600圓	각색

이외 다른 옷감도 광고품 가격과 똑갓이 싸게 팝니다

우미관모퉁이서부터넷재아래집종단집
普信布木店
서울市鍾路二街七○
布木部金銀部兼營

大韓日報의狂相을糾彈하야

背後破壞分子들의凶計를衝擊함

割鷄에 어찌牛刀를쓰랴? 우리는 이러한생각으로써 大韓日報의狂相에對하야 沈默을지켜온지오래엿엇다 그리하엿더니 그의行動은 愈出愈怪하야 到底히 默過할수없는터인故로 모기를보고 軍刀를빼는 점잔치않은줄은알면서도 一言이없을수없어 이글이 있게된것이다

大韓日報는 總選擧를前後하야 百方으로 本黨을毁謗하야 識者로하여금 도리어 嚬縮케한배있었다 그러하엿더니 今番의政府組織을 契機로하야 또百方으로 本黨을毁謗하고 本黨의黨首를爲始하야 重要幹部들을 攻擊하야北에서 放送하여오는 共産黨의態度를 꼭그대로 본받고있다 더욱이 最近에와서는 檀民黨의所謂要人暗殺陰謀事件이라는것을 大書特書하야 本黨을 그에 關聯시켜서 惡評毒舌을加하기에 餘念이없는形便이다 우리는大韓日報의 이러한狂態亂相을보고 그背後에숨어있는 破壞分子들의 行動이얼마나 惡毒한것인가에 對하여 忿怒를禁할수없는바이다

우리韓國民主黨은 우리獨立에 참으로 忠實한政黨이고 그行動에있어서 正正堂堂한政黨이다 共産黨과 싸와서 建國準備委員會, 人民共和國을粉碎하엿고 左右合作派와싸와서 信託統治를排擊하엿고 南北協商派와싸와서 總選擧를推進시켯다 오늘날 우리憲法이 制定되고 우리大統領、副統領이選擧되여 우리中央政府의樹立이 目前에 다달았다 이러한事態를釀成한데 對하야 本黨은 그윽히 自負하여좋을줄안다 今日의 現狀을 馴致한데對한 太半의 功績은 本黨이 차지하여야 하리라는것은 內外國人士가 다같이 承認할바로 생각된다 그러한데 鼠竊狗偸의 徒輩들이 暗詐한野慾에 눈이 어두어서 正正堂堂한 本黨을 謀陷하려고 하는것은 天人共怒할 不道한行動이라고 하지아니할수없다 더욱이 檀民黨과 本黨과 關聯시키는것은 何等의理由도없는 純全한 政治的謀略에서 나온것이라는것을 指摘하야 그들의非를 鳴鼓而攻之하는 바이다

滿天下愛國同胞들! 大韓日報는 北쪽의平壤放送과 步調를마추워 本黨을 害하려고하고있는것을 明察할지어다! 選擧를反對하고 政府樹立을反對하던 破壞分子들이 틈을타서潛入하야 우리政界를 混亂케하려고하는謀略이 그사이에 숨어있는것을 明察할지어다! 그리고 우리韓國民主黨은 秋毫의 私心이없는 참으로 民族國家를爲하여 싸우는 唯一한政黨이라는것을 아울러 明察하기바라는바이다

檀紀四二八一年七月二十六日

韓國民主黨

逃走劇꾸미고屍體水葬 關係者14名授賞

首都廳拷問事件關係幹部送廳

搜査局서 眞相發表

기보한바 수도청중추간부다수가 관련된 고문치사 시체 은멸사건에 관하야서는 수사국에서 엄밀한 취조를 한후 관계자를 구속하드니 二十六일오전十시 一건서류와함께 관방장겸 수사과장로덕술(盧德述) 수사과부과장 김재곤(金在坤) 사찰과부과장 박사일(朴士一)의 금류하(金溜夏) 백대봉(白大鳳) 등은 송청하였는데 이문제에 관하야 수사국장 조병설(趙炳契) 부국장 리만종(李萬鍾) 양씨는 부국장실에서 왕방한 중앙청기자단절문에 대하야 그진상을 발표하였다

이에의하면 一월二十七일 수도청에서는 장청장저격사건혐의자박성근(朴聖根)(二五)을체포하야 당시혐의가 농후하다고지목되든 림화(林和)와박성환를 동일인으로인정하고 중부경찰서형사실에서 취조하든중동일오전十시로덕술수사과장과최운하(崔雲霞)사찰과장두명이 취조현장에나타나 소위림화의자백을 강요키위하야 로덕술자신이 곤봉으로 무수구타하야 중상을 입힌후 다시김재곤경감과 박사일경위에게 물메기는고문(속칭잠수함)을 하도록 지시하야 전후약三시간이나 물은먹인결과 결국자망하게되니 로덕술은 이를 은폐하기위하야 검재권 박사일등에게 지시한결과 박사일은 二十八일오전二시경「저놈도망간다」소리를치며유리창으로 뛰여나가 일장연극을 꾸미고 박사일 김재곤두명이 시체를 자동차에실코 한강(漢江)에가서 인도교아래 책빙장 어름구녕이에 던저버렸다한다

한편수도청장 장택상(張澤相)씨는 이일이있은후 二월五일오전十一시수도청회의실에서 동사건관계자와 목격한경관등 十四명을불러 치하의훈시를 한후 직석에서 최고二만원부터 최저五천원까지의 상금을각각수여하였다한다

責任所在糾明

人權擁護聯盟談

수도청내 고문치사사건에관하야 二十六일인권옹호연맹에서는 다음과같이말하였다

어제신문을보고 경무부에 진상을알려고왔든길인데 듯고보니너머나 어마어마한사실이다 이것이사실이라면 우리로서는적극적으로 책임소재를 규명할것이며 책임자는맛당히사퇴하고 인책사직해야할것이다 본연맹으로선 간부회의를열고 조속한기간내에 이에대한 철저한방책을 강구하겠다

盧德述逃走

搜査局서逮捕令

二十六일 송청된수도청간부의 폭행능욕상해치사사체유기혐의사건의 제一피의자 로덕술(盧德述)은 그간수사국에서 구속중이였었으나 수도청부청장 김태일(金泰日)씨의 보증책임아래 일시구속을풀었든바 二十五일도주하였음으로 수사국에서는 방금남조선일대에 지명수배하야체포하도록명령을 나렸다한다

張廳長被襲

時間場所未發表

수도청장 장택상(張澤相)씨가 또다시 피한의 피습을 받었다고 수도청에서는 二十六일 다음과같이발표하였는데 수사상지장이라하야 시간장소및

商務社復活

이조조이때 六백년보부상(보부상)이주동체가되어 국가경제기타에 공헌이많든상무사(商務社)는 연고자의 주선으로 부활케되여二十六일 시내국일관(國一館)에서 부흥대회를거행하고 다음과같이 부서를결정하였다

△自堂上李承晩 △副堂上李始榮 △都統領申翼熙 △參議院李範[illegible] △副位領朴裁英

우기관에관하야는 一층연금을퇴하였다 [illegible] 영등포모지점은 동 피안二명이 [illegible] 사하였으나 별피해는없었고 다만중용차가약간파해되였을뿐이다

萬里洞에大火 損害七千萬圓

二十五일오후八시三十七분경시내서대문구 만리동(萬里洞)二四二번지 조일조(朝日組)제十六호창고二층에서 발화되여동창고과 연장고 十七호二동이 전소되였는데 동창고내에는 중앙청 보건후생부 약무국에서 민간회사에 대금한 미국수입약품을 비롯하야 자전차 카바이트 등이 있었는데 전부타버렸다고한다 동회사사장 김병철(金炳哲)씨 말에 의하면 손해는약七천여만원에 달한다고하는데 경찰에서는 [illegible] 六명을 조사중이라한다

辯護士會任員改選

서울변호사회(辯護士會)에서는 지난二十二일 개최한총회에서 다음과같이임원을 개선강화하였다

會長李[illegible] 副會長趙[illegible] 常任委員[illegible] 總務崔光源 [illegible] 議長吳承根

輸入貨物保管은半年

期日지나면過政서沒收處分

「딘」군정장관은 七월二十二일부로 법령제二백十一호를 공포하였는데 이에의하면 남조선에 수입된화물은 최초저장기일부터 六개월이내에 보세창고(保稅倉庫)나 세관으로부터 반출되여야할것이며 만일 기한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화물은과도정부에접수되여 처분되도록되여있다 그러나 화주의적법출원이 있을때에는 재무부장은 기한을연장할권한이있다한다

法令二百十一號를公布

人肉먹은富豪 金泉서自殺?

【大邱支局特電】대구식아(食兒)사건에 등장된주인공이(李)정우의행방을 조사하는 형사대는 二十四일새벽 물연문제의 정우가 김천(金泉)군지례면모존락에서 식아사건의신문을보고 극도로비관하여 자살하였다는 정보를입수하야 현지에파견되였는데 억만의재산도 화

立候補者決定?

地下總選問題로警察은緊張

남조선좌익계열의 지하선거는 기보한바와같이입후보자까지 결정을본모양으로 종로서에서는허집(許執)(三五)의 十여명을체포문초하는한편 이를 남조선각경찰에 연락하는등 긴장상태를보이고있다 이들은 이미지난二十五일까지 두룡으로작성된입법의원입후보자추천서까지 전부끝낫스며추천서二통중한통은오는九월「파리」에서열리는 UN총회에보낼것이라한다 이것은현재저명한 남조선좌익지도자들의대반이 지하나혹은 북조선에 거주하고있는현상에 빗우어 이후천서를거치어 실시되는 지하총선거가이들좌익지도자들의법적발언권획득과아울러八월二十五일의선거는 남북일제히실시된총선거라는 견지에서 그리고서울시내입후보자는다음과같다고한다

△永登浦 朴憲永 △龍山 許憲 △鍾路 劉英俊 △麻浦 許成澤 △東大門區 李舟河 △西大門區 朴俊泳 △中區 金台俊 △城東區 金基道

興德王陵碑片發見

新羅史研究에貴重한資料

「신라사」 연구의 한숙제로되어있든 경주의흥덕왕릉(興德王陵) 비석이발견되였다

대구「영남일보」보도에의하면경주고적 보존회간사최남주(崔南柱)씨가 지난달부터경주부근각릉묘와수호현상을조사중 동비석파편두개를 그부근발고랑에서 파내어 방금경주박물관에서 보관중으로 비문전부를 해독하기는 어려우나이방면연구에 상당히 귀중한자료가 되리라고한다

☆경주군(江西洞六通里)에있는 신라四十二대왕 흥덕왕과 동왕후를 합장한릉은 그구조에있어서나 주위의十二지신상의 릉호석(陵護石)과 四방의 돌사자등은 당지의 신라예술을 엿볼수있는 좋은재료일뿐더러 그뒤고려와 이조시대에있어서의 릉묘의기준으로 되어있는 것인데 그중엔 아까웁게도 흥덕왕릉의 비석은 없어지고 그구절(龜趺)만이 남어있을뿐으로학계에서는 크게궁금하게 여겨오든것이라한다

美軍트럭에치어 兪道壽氏遂絕命

서울시신교동(新橋洞) 一七번지의 一五호에 거주하는민주일보기자 유도수(兪道壽)(二七)씨는지난二十五일밤 十시반경 중앙청앞네거리에서 질주하는미군트럭에 치워두부에 타박상을입어 종로서원이발견하고 곳미군제一七七병원에 입원가료하였으나 약효없이 작二十六일오전一시경 절명하였다한다

日氣豫報

南西風이불고 大體로흐리며 때때로비가나리겠다

韓獨黨支部擴大大會에不祥事

지난二十일 진주극장에서 개최된 한독당(韓獨黨)진주지부확대대회는회의진행중 미소양군철퇴와 단정배격 통일정부수립주장의결의문을 낭독하자경찰의제지를받는동시정체불명의 청년수명이돌연단상에올라 동당진주지부위원장 박명래(朴明來)씨에대하여 폭행을가하고 고무장경관의해산명령으로회의는중지되였다고한다(晋州朝通)

音樂界의耆宿 李尙俊氏永眠

현대조선음악계의 대선배인리상준(李尙俊)씨는 숙환으로지난二十五일하오九시시내내수동(內需洞二五〇)자택에서 영면하였다 씨가신구전환기의 조선교육계에서 음악을담당하야 끼친바공적이 큰것은세상이다아는바이나 향년六十六세로는너무나애석하다 발인은廿七일오전구시라한다

올림픽消息

蹴球一回戰

朝鮮對墨西哥戰은來二日

【런던廿六日發UP朝通】「올림픽」「축커」蹴球第一回戰相對方 抽籤結果가二十五日밤에 發表되였다 이에 依하면 朝鮮은 第一回戰에서「멕시코」와 對戰하는데이 試合은 八月二日午後六時三十分(GMT)「런던」東南部「덜릿치・헴멧트」蹴球競技場에서「유ー고」의「레메스치」氏審判으로 擧行되리라한다 其他蹴球第一回戰豫定은如左하다

七月三十一日午後六時三十分擧行‖埃及對丁抹「런던」西南部「크리스탈・페러스」球場에서 審判은白耳義「로랑・포랑게」氏 英國對愛蘭 또는 和蘭「런던」東北部「아ー시널・스타디엄」審判 丁抹의「발라우센」氏 佛國對印度「런던」「포드」球場審判 瑞典「구나・달테르」氏 「룩셈부르그」 또는「아프가니스탄」對「유ー고스라비아」「런던」西南部「필런」球場審判 和蘭의「렘베ー르」氏

八月二日午後六時三十分(GMT)擧行‖中國對土耳其「런던」東北部「월삼스토」球場 審判英國「T・버」氏 伊太利對 美國「런던」西部「브렌퍼드」球場 審判 佛國「떼리시」氏 第二回戰 相對方決定抽籤은 八月二日밤에「런던」에서 行할것이다

朝鮮의올림픽參加는壯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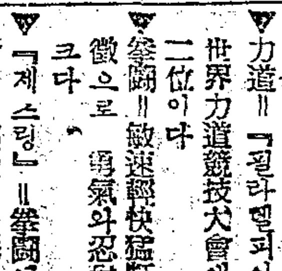
美陸軍聲明發表

【워싱톤二十五日發UP朝通】美國陸軍은 六十六名의朝鮮人選手가「올림픽」競技大會에 參加하게될것을稱揚하는 如左한聲明書를 發表하였다

처음으로朝鮮國民은 自身의 國旗아래에서「올림픽」에 參加하는것이다(中略)「마라손」選手徐潤福은 優勝할것이다 終戰에서不過三年後에 그리고獨立國家로서 發足하는 때에있어이나라는 보다더 志가弱한民族이라면 躊躇할 事業을完遂하였다 過去에서「올림픽」競技에서 朝鮮人은 光彩를 發現하였으나 그들은他國을代表하였던것이다 孫基禎君은一九三六年 日本팀에參加하야「마라손」新記錄을세웠다(中略) 그는現在朝鮮選手團首席監督이다 朝鮮「팀」의 實力은 아래와같다

▲「축커팀」‖이는去年上海에서四戰三勝하야最高榮譽를獲得하였다
▼「바스켓트볼」‖猛烈하고迅速한 競技로猛烈한 鬪爭을展開할것이다
▼自轉車‖二朝鮮人選手 現有百키로「올림픽」記錄을 凌駕하였다
▼力道‖「필라델피아」의 世界力道競技大會에서 第二位이다
▼拳鬪‖敏速輕快猛打를特徵으로 勇氣와忍耐力이 크다
▼「레스링」‖拳鬪에서와같이 輕量에優秀하다
▼「마라손」‖徐潤福은最優秀한 個人選手일것이다 全朝鮮은 그가올림픽에서 優勝한사람으로믿고있다 그는一九四七年「보스톤」에서 子午에故障이있었음에도 不拘하고二時二十五分三十九秒로 優勝하였다 異彩를띄운것은朴鳳植孃이며 最初의朝鮮女子올림픽選手이다

自負心센사람中 하나는沈載弘氏



【런던二十五日發UP朝通】國際競技選手들이 이곳「올림픽」村에 集合하여있는 部落에서가장 自負心이센사람中하나는 朝鮮選手團財務係沈載弘氏이다그는記者에게 다음과같이말하였다 過去四百年來에朝鮮이 國際行事에參加한것은 今番이最初이다 그리고 朝鮮人團體가 其他國家民과共同行動을 取한것도 今番이처음이다 이는 우리國家自由를 達成하는데있어 一大進步이다(寫眞은沈載弘氏)

『올림픽』入場券 二百二十餘萬枚

【런던廿六日發AFP合同】當地에서開催될『올림픽』大會의 入場券은 二百廿二萬五千枚라는바 그半數가 이미팔리였는데 至今까지팔린 入場券의總金額은 四十萬磅이라한다

故羅雲奎 映畫大會
羅雲奎監督
아리랑
主演 朱仁奎・申一仙
同時上映 沈淸傳
入場料 25圓 稅金別途
27日부터 朝鮮劇場

가을씨앗 種子팝니다
園藝價格目錄無料進呈
서울市鍾路三街
株式會社 東洋農園
電話光(3)三三三三・九八〇 振替京城二〇七二

第六回參加 近畿蹴球大會
日時 七月三十一日 八月一日 兩日間(不拘雨天)
參加金 五百圓也
賞品 優勝旗와副賞萬圓 準優勝(決勝팀)—副賞五千圓
主催 廣州蹴球團
後援 朝鮮日報・서울신문廣州支局

皮膚・泌尿・性病科 吳元錫醫院
서울市安國洞네거리
電話光(3)二二三一番
(診察時間—自午前九時—至午後五時)

木炭素棒 直徑一四粍乃至二十二粍의炭素棒(카ー봉)을求함
東洋乾電池工業株式會社
西大門區萬里洞二街七七 電本三〇五一

百中華
三新堂製藥社
서울市西大門區[illegible]

婦人冷病(냉이) 神經衰弱
天池藥房
서울[illegible]

謹謝火災
지난七月二十五日[illegible]
[illegible]
西紀一九四八年七月二十六日
서울市西大門區萬里洞一街四十一番地
株式會社 朝日組

生徒募集期日變更
校舍擴張修理關係로期日을玆에變更함
一、募集人員 第一部(晝間)第一學年 二〇〇名 第二、三、四、五學年 各二〇名 第二部(夜間)第一學年 六〇名 第二、三、四學年 各二〇名
一、入學試驗期日 八月一日부터 入學願書提出期日 七月三十一日限
現在學校維持에는[illegible]
詳細來問 [illegible]
追而校舍增築工事落成[illegible]
不滅民族育英施設擴充에[illegible]
諸賢에게感謝하나이다
朝鮮中學校 校舍增築促成會

BUTTERFIELD & SWIRE
香港向 出航
S/S HU NAN
湖南號
八月十日 仁川入港
八月十二日 仁川出港(上海・福州經由)
旅客・貨物及海上保險取扱
太古洋行
서울市小公洞一一二의九
電話(2)六四〇六(테이라ー빌딩)
臨時事務所 仁川府新浦洞二四 電話七六二萬聚東

新刊
金道泰記述
徐載弼博士自敍傳 —韓末史를中心으로—
(四六判 三四八五頁 洋裝 四〇〇圓)
徐博士自身의口述을 一個月餘에걸처 二十餘回나 거듭하여 들으며 筆者의核心한 歷史的事實을 土台로하고 記述한 숨김도 誇張도없는 博士八十生涯의 祖國을위한 鬪爭史인 동시에 한卷의 正確한 韓末史이기도하다

異河潤譯詩集 佛蘭西詩選(四六判 定價一八〇圓 美裝)
十九世紀浪漫詩人 빅톨・유고를 위시하여 발레리, 꼭도의 現代에 이르기까지 佛蘭西詩人의 名作選譯集

안델센作 宋鎭英譯 어머니의사랑(四六判 定價一〇〇圓 美裝)
少年時代엔 누구나 아니읽어본 사람이없는 안델센의 童話에서도 가장 자미나는 名篇만을 추려옮겼다 小學生도 中學生도어머니도 아버지도 다 읽어야한다

旣刊
廉尙燮著長篇小說 萬歲前(四六判 定價一五〇圓 美裝)
이미 하나의 完美한 藝術世界를 가진 氏의 長篇力作으로 祖國魂을 찾는 三一萬歲前 朝鮮社會相이 이한卷에 如躍한다

에루ー잘렘著 金宗洽譯 哲學概論(四六判 定價二五〇圓 特裝)
哲學에 뜻둔 初學者는 哲學入門書中의 王으로 定評있는 이 에루ー잘렘의 哲學槪論을 다른것보다 위선 먼저 읽고보라

株式會社 首善社
서울市明洞二街四五
振替京城一三三九番

入學歡迎
第一回 校外生移動講座開催
科別(科目及講師)
政經科 8月1日—8月5日
憲法 金正實 外一人
政治學 崔鳳鎬 朴熙誥
經濟學 陸芝修 吳學根
國際公法 高光林 外一人
法律科 8月7日—8月11日
憲法 兪鎭午 金正實
民法 高秉國 張暻永
刑法 嚴祥燮 金文錫
商法 李根昌 洪璡基
受講資格及人員 서울市內在住校外大學生(入學手續과同時受講申請도無妨) 申請者 各三百名以內
申請方法 (各科開講日第一號로開講日)正午까지(詳細은法律講座八月六日(政經七月卅一日)來校問議할것)
財團法人 檀國大學附屬校外大學
서울市鍾路貫勳洞一四二(安國洞네거리)